

케다란 폭음과 찬란한 색깔

“왜 하나님 아버지는
시끄러운 소리를
없애 주시지 않나요?”
살럿이 물었어요.

헤더 설리번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함)

이 이야기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살럿은 시끄러운 소리가 싫었어요! 컵에서 쿵쿵거리는 소리도, 머릿속에 울리는 소리도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심지어 자기가 안전한 게 분명해도, 자동차가 끼익 소리를 내며 서거나, 군중이 환호성을 지르거나, 북소리가 나면 계속 긴장이 되었어요.

그리고 살럿은 불꽃놀이가 정말 싫었어요!

살럿의 가족은 큰 소음이 날 때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살럿을 진정시키려고 노력했어요. 아빠는 소음을 막을 특별한 귀마개들을 사 주셨고, 엄마는 천둥이 치면 이불 속으로 들어와 살럿을 꼭 안아 주셨어요. 또, 살럿은 무섭지 않게 해 달라고 기도했어요.

모든 방법이 도움이 되었죠. 하지만 그래도 살럿은 여전히 큰 소리가 무서웠어요.

“오늘 밤 공원에서 하는 특별 불꽃 쇼를 보러 갈 거야.”
엄마가 말씀하셨습니다. “너도 같이 가 볼래?”

살럿은 얼굴을 찌푸렸어요. “하지만 불꽃놀이는 너무 시끄러워요.”

“이제 너도 조금 더 컸으니 불꽃놀이를 보는 게 좀 더 재미있을 수도 있어. 친구들도 다 올 거고. 네 특별한 귀마개를 가져가도 돼. 한번 시도해 보면 어떨까?” 엄마가 말씀하셨습니다.

살럿은 한숨을 쉬었어요. “알았어요. 해 볼게요.”

공원 불꽃 쇼의 시작은 완벽했어요. 살럿과 친구들은 풀밭을 뛰어다니며 간식을 나눠 먹고 게임을 했어요. 곧 하늘이 어둑해졌어요. 살럿은 귀마개를 하고 앉아서 초조하게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캉! 캉! 팽!

살럿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어요. 가슴이 꼭 막혀 오는 것만 같았어요. 살럿은 벌떡 일어나 주변의 굉음에서 벗어나려고 했어요.

그때 엄마가 뒤쫓아와 살럿을 안아 올리셨어요. 둘은 함께 자리에 앉았어요. 엄마는 살럿을 꼭 안아 주셨어요. 살럿의 볼에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소리가 많이 무서웠구나. 엄마 여기 있어. 소리에 너무 신경 쓰지 않도록 저 불꽃놀이 색깔에 집중해 보자. 네 눈엔 뭐가 보이니?” 엄마가 말씀하셨습니다.

살럿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금색과 빨간색, 초록색이

보여요.”

“이제 냄새를 맡아 보렴. 무슨 냄새가 나니?”

“연기 냄새와 풀 냄새요. 그리고 팝콘 냄새!” 살럿이 말했어요.

“또 어떤 감각을 사용할 수 있을까?”

살럿은 눈을 꼭 감았어요. “불꽃놀이가 느껴져요. 불꽃이 터지면 가슴이 떨리는 게 느껴져요.”

“맛은 느껴지니?” 엄마가 물으셨어요.

살럿은 혀를 내밀었어요. “불꽃놀이는 아무 맛도 안 나요.” 살럿은 웃음을 터트렸어요.

엄마와 대화하다 보니, 살럿은 궁금해졌어요. ‘사람들은 어떻게 다른 색을 만들 수 있을까? 폭죽은 왜 폭발하는 거지? 어떻게 저런 다양한 모양을 만드는 걸까?’ 살럿은 이제 불꽃놀이가 별로 무섭지 않았어요.

“엄마, 불꽃놀이는 정말 멋져요!” 살럿이 말했어요.

그날 밤, 잠자리를 봐주시는 엄마에게 살럿이 물었어요. “왜 하나님 아버지는 큰 소리를 없애 달라는 제 기도에 답해 주지 않으실까요?”

엄마가 잠시 생각에 잠기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을 항상 없애 주시는 건 아니지. 하지만 때로 그분은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상황을 보도록 도와주시거나 우리를 위로해 주는 사람들을 보내 주신단다.”
엄마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 저를 도와주셨던 것처럼요!” 살럿이 말했어요.

“맞아!” 엄마가 빙긋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넌 겁이 났어도 불꽃놀이를 보러 갔잖아.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네가 무서움을 가라앉힐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야. 또, 네가 다른 감각을 통해 불꽃놀이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셨지.”

살럿은 하늘을 수놓던 찬란한 색깔들을 떠올리며 빙그레 웃었어요. 살럿은 여전히 시끄러운 소리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무서움도 느꼈고요. 하지만 살럿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언제나 자신이 용기를 내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사야 41:10)